

유미흉을 동반한 간경변증 1예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박수연, 남승우, 윤용범, 권혁춘, 정주원, 최종경, 이근숙

서론: 유미흉(Chyllothorax)은 흉관의 파열로 유미(chyle)가 유출되어 흉곽 내에 고인 것을 말한다. 유미흉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외상이며 흉관 수술 후에 가장 흔하다. 그 외에 종격동 종양, 간경변, 결핵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본 증례는 다른 원인 없이 간경변에서 발생한 유미흉으로 고식적 치료로 호전된 경우이다. **증례:** 47세 여자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그녀는 만성 C형 간염과 음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로 내원시 혈액검사상에서 혈소판 43,000/ μ L, AST 297 U/L, ALT 62 U/L, 알부민 2.2 g/dL, 총빌리루빈 2.6 mg/dL, 콜레스테롤 129 mg/dL, LDH 501 U/L, PT(INR) 1.50, γ -GTP 542 IU/L 이었으며, 단순흉부방사선 및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다량의 흉수가 관찰되었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복수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량의 흉수 소견만 보여 치료 목적의 흉강천자를 실시하였다. 천자액은 우유빛을 띠는 체액이었으며 흉수 검사에서 중성지방 193 mg/dL, 콜레스테롤 119 mg/dL, LDH 116 U/L, 알부민 660 mg/dL로 유미흉으로 진단되었다. 유미흉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른데 흉관 손상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나 본 증례와 같이 간경변증에 의한 유미흉의 경우 내과적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경경정맥 간내문맥 정맥단락술(TIPS)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도플러에 의한 간정맥의 파형이 3위상(Triphasic wave)을 보이고, 상부 위장관내시경에서 정맥류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복부 CT상 복수가 없어서 간문맥 항진증의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서 TIPS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흉강천자 등 고식적 방법만으로 치료하였다. 환자는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2개월 후 시행한 단순흉부방사선상 흉수는 악화되지 않았고 진단 목적의 흉강천자소견 상 유미흉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문맥 항진증을 보이지 않고 복수없이 흉강내에만 발생하는 유미흉의 경우에는 TIPS나 그 외 외과적 치료 방법없이도 고식적인 치료를 통하여도 호전됨을 확인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심성 간경변으로 유발된 위 정맥류 출혈 1예

¹안양샘병원, ²청주하나병원

*유동욱¹, 정우조¹, 최재현²

상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 중 정맥류 출혈은 사망률이 높은 문맥 고혈압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다. 정맥류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간경변은 B형 간염바이러스, C형 간염바이러스, 알코올이 대부분 그 유발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만성 심부전에 의해 유발되는 심성 간경변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저자들은 심성 간경변으로 인한 위 정맥류 출혈 1예를 경험하였다. 당뇨와 고혈압 이외 특이 병력이 없는, 67세 남자가 흑색변과 토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음주력은 없었고 가족력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다. 내원 당시 혈색소 6.3 g/dL로 빈혈이 있었음에도 맥박 수는 분당 40회 정도의 서맥이었다. 심전도에서 3도 방실전도차단을 동반한 완전우각차단 소견을 보였다. 흉부 단순 X-선 검사에서는 심비대와 폐울혈을 보였고 심장 초음파에서 양심실 확장, 이완기능장애를 보여 울혈성 심부전에 합당한 소견이었다. 응급으로 시행한 상부위장관내시경에서 활동성 출혈은 보이지 않았으나 위바닥에서 출혈 흔적이 동반된 위 정맥류가 관찰되어 histoacryl을 주입하였다(Fig. 1).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간실질의 조영증강이 불균질하게 보이는 간경변이 의심되었고 하대정맥과 간정맥 확장 소견이 저명하였다(Fig. 2). 바이러스 혈청 검사에서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배제 할 수 있었으며 혈청 ceruloplasmin, 자가면역항체 등을 검사하여 간경화의 타 원인을 배제하였다. 결론적으로 심성 간경변으로 진단하였고 울혈성 심부전에 관한 치료를 병행하였다. 심성 간경변의 예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기존 심장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으며, 전반적인 예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본 증례는 국내에 아직 보고된 바 없고, 예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 정맥류 출혈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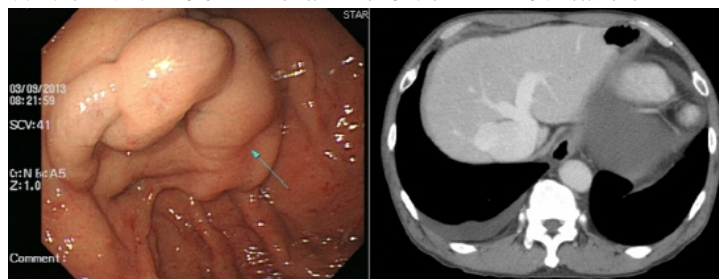


Fig. 1. Endoscopic finding. Gastric varix with subtle ulceration (maybe bleeding stigmata) was noted at fund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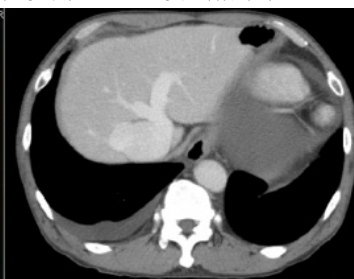


Fig. 2. Abdominal CT shows irregular contour of liver with multiple ill-defined low density nodules and severe distension of IVC.